

규제연구 제17권 제1호 2008년 6월

스크린쿼터의 규제 효과에 관한 미시적 연구

-극장주의 상영 패턴을 중심으로-

-박 민 수* · 오 정 일**

본 논문에서는 1993~2004년의 개별 극장의 영화 상영 자료를 사용하여 스크린쿼터 제라는 규제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극장주의 상영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상이한 시점에 상영된 한국영화의 흥행성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여타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흥행에 미친 효과와 구분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스크린쿼터 제약하에 있는 극장과 쿼터를 충족시켜 제약에서 벗어난 극장의 상영 패턴을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 이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제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2001~2004년에는 쿼터를 채운 극장과 채우지 못한 극장 간에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3~1998년에는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의 한국영화 상영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이 쿼터를 채운 극장에 비해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한다는 가설은 대상 시기에 관계없이 기각됨으로써 스크린쿼터제가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스크린쿼터제, 규제, 영화산업, 수요의 계절성, 횡단면 분석

* 제1저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용머리2길 38(mpark@kisd.re.kr)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jo31@knu.ac.kr)

*** 이 논문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B00775).

접수일: 4/15, 게재확정일: 5/27

I. 서 론

스크린쿼터제는 우리나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극장주는 연간 상영일수의 20% 이상을 한국영화에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따라서 연간 상영일수가 365일인 상영관에 대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73일이 된다. 스크린쿼터제가 시행 초기부터 현재와 같이 20%였던 것은 아니며 특정 시기에 쿼터가 축소, 혹은, 확대되면서 지금의 20%에 이르렀다.¹⁾ 스크린쿼터제는 1966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때는 쿼터가 90일이었으나 연간 국산영화 상영 편수와 국산영화의 상영 시기에도 제한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1973년에 획기적으로 변하는데, 국산영화 상영 편수와 상영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쿼터가 연간 상영일수의 3분의 1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상영일수만을 제한하는 방식의 스크린쿼터제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국내법과 국제조약에 의해 시행의 정당성이 보장된 제도이다. 먼저, OECD ‘현행 비가시적 사업의 자유화 협정(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은 국산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생산보조금의 지급과 스크린쿼터제 시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GATT 역시, 제4조 ‘영화에 관한 특별 규정(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Cinematographic Films)’에서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로 회원국들이 자국영화에 대한 특혜로서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1995년에 헌법재판소가 스크린쿼터제가 극장주에게 국산영화의 상영을 강제함으로써 극장주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그것이 직업

1) 2006년 초 40%였던 쿼터가 축소되어 현재 20%(73일)이나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이 1993~2004년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의무상영일수는 40%로 간주하였다.

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균형적인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성격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목적을 영화산업의 발전이라고 적시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를 산업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GATT와 OECD는 영화산업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스크린쿼터제를 허용함으로써 동 제도의 문화정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성격에 대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해석이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스크린쿼터제는 수량 규제로서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인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쿼터가 100일 미만이고 상대적으로 쿼터가 많은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쿼터의 대상이 자국이 아닌 유럽공동체에 속한 국가의 영화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정책이 시행될 경우 그 정책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게 마련이고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얻는 집단과 손실을 입는 집단이 발생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이 손실보다 크면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효과, 즉 정책 집행을 통해 발생한 편익을 측정할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측정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성격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산업정책적, 혹은, 문화정책적 측면에서 동 제도의 효과를 측정했던 연구들을 소개한다. 또한, 극장주의 상영 패턴 분석을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효과를 더 엄밀하게 측정했다는 데 있다. 스크린쿼터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경제주체는 개별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주이기 때문에 극장주의 상영 패턴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개별 상영 작품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연구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스크린쿼터제는 일종의 규제이기 때문에 극장주의 상업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 규제 대상자의 규제 회피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극장의 연중 상업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매년 영화연감을 발간하면서 그해에 개봉된 영화에 대한 자료를 담았다. 그러나 이는 개별 영화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이며 개별 극장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무하다. 최근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극장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면서 주 단위로 개별 극장의 상업작과 관객 수를 집계하고 있으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모든 극장들이 영화진흥위원회에 자료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우리나라 영화시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II. 기존연구 검토

기존의 연구는 그것이 스크린쿼터제 긍정론이든, 부정론이든 방법론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양자 모두 기본적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했는데, 종속변수로는 개별 영화의 흥행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 예를 들어, 관객 수나 수익을, 설명변수로는 흥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가 설명변수의 하나로 고려되는데 이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으로 나타나면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의 흥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동 제도는 정책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목표를 한국영화의 흥행 성공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산업정책으로 간주한다.

영화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로 개별 영화의 흥행을 설명하는 방식은 자동차나 주택의 특성 변수들로 자동차나 주택 가격을 설명하는 이른바 ‘헤도닉 가격(Hedonic Price)’ 모형과 유사한데, 순수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변수들을 모형 내에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는데 편의상 스크린쿼터 제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눈다.

1. 스크린쿼터제 긍정론

이해영 외 4인(2004)은 1993~2002년까지 전국 16개 시도별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과 상영일수, 허위상영일수 등을 이용해서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는데, 분석의 대상을 1993년 이후로 삼은 이유는 비록 스크린쿼터제가 196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쿼터가 준수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3년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스크린쿼터가 하루 축소됨에 따라 국산영화 시장점유율은 매출액(관객 수) 기준으로 약 0.34(0.33)% 감소하며, 146일로 규정되어 있는 쿼터가 96일로 50일 축소될 경우,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영 외 4인(2004)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산영화의 허위상영일수, 즉 스크린쿼터제와 상영일수만을 국산영화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포함시켰다. 둘째, 이 모형에서는 허위상영일수와 상영일수가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가정했는데 역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산영화의 흥행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극장주는 법을 위반하면서 외국영화를 상영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허위상영일수가 감소할 것이다. 즉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허위상영일수가 줄고 국산영화의 상영일수가 늘어나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산영화 시장점유율을 종속변수로, 허위상영일수와 상영일수를 설명변수로 간주한 이해영 외 4인(2004)의 연구는 타당성을 잃게 된다.

2. 스크린쿼터제 부정론

(1) 회귀분석을 이용한 연구

강신일(2001)은 1990~1999년 사이에 제작된 국산영화 중에서 영화등급, 제작비용, 흥행수입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78개 개봉작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1996년 전에 개

봉된 영화와 후에 개봉된 영화의 수익률을 비교하였다. 1996년을 기준연도로 삼은 이유는 1996년부터 최대 40일까지 쿼터 축소가 가능해져 종전에 146일이었던 쿼터가 실질적으로는 106일로 줄었기 때문이다. 즉 1996년에 스크린쿼터제가 완화된 것으로 간주하여 1996년 이후에 개봉된 영화들의 수익률이 이전에 개봉된 영화들보다 높은 것은 스크린쿼터 완화에 의해 국산영화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개봉연도’를 사용한 것이다. 1996년 이후에 개봉된 영화의 수익성이 이전 영화들에 비해 높다고 해서 이를 스크린쿼터제 완화의 효과로만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996년 이후에 개봉된 영화들의 수익성이 제고된 것은 영화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며 스크린쿼터제는 이러한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구조적인 변화의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여기서 추정된 스크린쿼터제 완화의 효과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지수 측정을 통한 연구

앞의 연구들이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영화의 흥행성과를 중심으로 스크린쿼터제의 유효성을 측정한 데 반해, 여기서 검토하는 연구들은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나 지니계수(Gini index)의 측정을 통해 시장집중도나 불평등도를 측정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지니계수의 추정은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목표를 ‘다양한 영화의 상영’으로 가정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된다.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보호 장치가 없으면 외국영화사가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다국적 외국영화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윤미경 외 2인(2004)은 한국 영화시장의 전반적인 구조가 상당히 경쟁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허핀달 지수를 계산해서 시장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는데 허핀달 지수가 1,000 이하이면 ‘비 집중’, 1,000~1,800이면 ‘중 집중’, 그리고 1,800 이상이면 ‘고 집중’ 시장으로 간주된다. 윤미경 외 2인(2004)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외국적배

사의 개별적인 시장점유율은 10% 미만이었고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도 약 22%에 불과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영화 유통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 상위 3개 배급사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허핀달 지수는 약 1,110~1,163으로 '낮은 중 집중'에 해당되었고 따라서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 배급시장에는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스크린쿼터제를 문화정책으로 간주하면 이 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영화 상영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가 문화정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했다면 국산영화의 다양성이 증진되었을 것이다. 오정일·조현승(2005)은 지니계수의 측정을 통해 국산영화의 불평등도를 계산함으로써 국산영화의 다양성을 측정했는데 1980~2003년 기간을 네 시기로 나누고 같은 시기에 속하는 자료들을 통합하여 지니계수를 측정하였다.

오정일·조현승(2005)의 측정 결과에 의하면, 관객 수 측면에서는 스크린쿼터제가 유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1993~1998년에 국산영화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영일수의 측면에서는 1999~2003년에 불평등도가 가장 높았으나 1993~1998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니계수가 1985~1992년 0.386에서 1993~1998년에는 0.577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스크린쿼터제가 유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1993~1998년에 상영일수 지니계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키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III. 새로운 연구: 극장주의 상영 패턴 분석

스크린쿼터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는 영화제작자나 관객이 아니라 어떤 영화를 얼마 동안 상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극장주이다. 관객이 관람할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이 스크린쿼터를 채우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극장주는 어떤 영화를 얼마 동안 상영하면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한국영화를 상영할 것을 강제하는 스크린쿼터

는 극장주의 이윤극대화에서 있어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극장주를 스크린쿼터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주어진 제품군-영화의 국적, 장르, 제작 규모 등으로 구분되는 영화들- 중 흥행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를 선택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주체로 가정하면 이러한 극장주의 이윤극대화 행위는 개별 극장의 상영 패턴 분석을 통해 관찰이 가능하다. 만약, 스크린쿼터가 실제로 극장주에게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다면 스크린쿼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상영 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흥행성이 높다면 스크린쿼터를 채운 극장들은 스크린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들에 비해 외국영화를 더 많이 상영할 것이다. 또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 미만인 상황에서 극장주가 스크린쿼터 때문에 한국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다면 극장주는 단순히 한국영화의 상영일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영화의 개봉 시점을 조정하거나 특정 장르에 속하는 한국영화만을 상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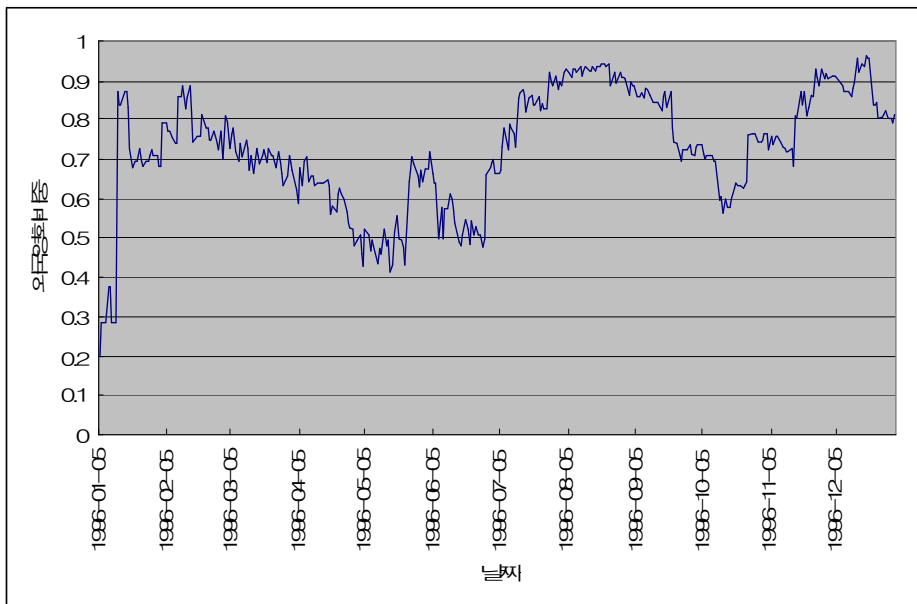
이론적으로 극장주가 특정 영화를 어떤 시점에 개봉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스크린쿼터 외에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영화관람 수요의 증가 혹은 감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이른바 성수기, 즉 방학이나 명절에는 관객들의 영화관람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수요를 노린 흥행성 높은 영화들이 집중적으로 개봉된다. 일반적으로 개봉된 영화의 수명 주기는 매우 짧기 때문에 총수입의 약 40%가 개봉 첫 주에 결정된다. 또한, 영화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극장주들은 개봉 시점의 결정을 통해 서로 경쟁하는데 이 과정에서 흥행성이 높은 영화들이 특정 시점에 대거 개봉되는 이른바 계절성(Seasonality)이 나타난다.

Einav(2007)는 1985~1999년 사이에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개봉된 모든 영화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영화산업에서 나타나는 계절성의 약 3분의 1은 특정 시기에 흥행성이 높은 영화들이 집중적으로 개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6월 말부터 9월 초는 관객 수가 감소하는 비수기인데 Einav(2007)가 추정된 영화관람 수요는 실질적으로 이 기간에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수한 영화관람 수요는 특정 시기에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비수기인 여름에 관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이 시기에 관객들의 영화관람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비수기라고 인식한 극장주가 흥행성이 높은 영화를 이 시기에 개봉하지 않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Einav(2007)의 이러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여주게 된다. 영화의 국적에 따라 상영 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즉 성수기에는 미국영화가 주로 개봉되고 비수기에는 한국영화가 대부분 상영된다면 이는 영화의 국적별 관람 수요에 계절성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극장주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영화의 국적에 따라 개봉 시점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영 패턴의 영화 국적별 차이는 스크린쿼터를 회피하고자 하는 극장주의 전략적 행동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²⁾

〈그림 1〉 서울 소재 개봉관 중 외국영화를 상영한 스크린의 비율(1996년)



자료: 자료로부터 저자가 직접 계산했음.

〈그림 1〉은 1996년에 서울시 소재 개봉관 중에서 외국영화를 상영한 극장의 비율을 일별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몇 개의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봄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는 외화의 상영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7~8월에는 서

2) 이 밖에 영화수요 및 극장산업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Ainslie, Dreze, Zufryden(2005), Gil(2006), Moul(2007), Orbach and Einav(2007) 등이 있다.

울 소재 개봉관의 90% 이상이 외국영화를 상영하였다. 반면, 추석을 전후해서는 외화의 상영 비율이 50% 가까이로 감소하여, 이 기간에는 한국영화의 상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영화의 상영 비율은 11월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월을 지나면서 다시 상승하였다. 요약하면, 외국영화는 주로 봄과 여름, 한국영화는 가을과 겨울에 집중적으로 상영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Einav(2007)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극장주가 영화의 개봉 시점을 국적에 따라 조정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그림 1>만을 바탕으로 극장주가 스크린쿼터를 회피하였으며 따라서 스크린쿼터제는 규제로서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3~2004년의 서울시 소재 개봉관의 연중 상영 자료를 구축한 후, 통계적 분석을 수행해서 <그림 1>과 같은 극장주의 상영 패턴이 존재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IV. 연구결과

본 절에서는 극장별 상영 자료를 이용해서 스크린쿼터제가 극장주의 상영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만약, 스크린쿼터가 극장주의 이윤극대화 행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다면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과 채운 극장 간에 상영 패턴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1> 스크린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은 채운 극장에 비해 외국영화를 상영할 가능성이 적다.

<가설 2> 스크린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은 채운 극장에 비해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할 가능성이 크다.³⁾

3)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한국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다양성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장르의 다양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만약, <가설 1>이 기각된다면, 즉 스크린쿼터 충족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한국영화를 상영할 가능성에 차이가 없거나, 혹은, 쿼터 충족 후에 한국영화를 상영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면 스크린쿼터제가 양적인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가 유효하다면 스크린쿼터제에 의해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봉된 국산영화 수는 스크린쿼터 충족 전과 후 달라져야 한다. <가설 2>는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극장주가 쿼터를 채우는 과정에서 흥행성이 있는 소수의 한국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한다면 쿼터 충족 후에 오히려 다양한 한국영화가 상영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오정일·조현승(2005)에서 제기된 바 있다.

영화시장은 동적이다. 개별 영화의 수명 주기가 짧고 시장 상황이 연도별, 계절별로 달라진다. 더구나, 한국 영화시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하였기 때문에 시기별 비교를 통해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상영 패턴을 시기별로 비교하는 대신에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과 채운 극장을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한다. 이렇게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면 영화시장에 존재하는 계절성이 제거된 순수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1. 자료 및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특정 시기의 극장별 영화 상영에 관한 것이다.⁴⁾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극장별 상영 정보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영화연감』에서 구했는데 『한국영화연감』은 특정 연도에 상영된 영화의 극장별 상영 시기와 기간, 그리고 관객 수를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로 구분해서 수록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는 영화전문 주간지인 『씨네21』과 『무비위크』로부터 수집하였다.

실증분석에 있어서 단위는 일별/스크린별 상영된 영화이다. 『한국영화연감』은 각 상

4) 본 연구에서 극장은 하나의 스크린을 의미한다. 하나의 멀티플렉스 극장 내에 존재하는 개별 스크린은 별개의 극장으로 간주된다. 법적으로 쿼터제의 규제단위도 개별 스크린이다.

영관마다 특정 영화가 상영된 기간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씨네21』과 『무비위크』에는 상영 정보가 주 단위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화가 개봉되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상영되기 때문에 일별/스크린별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02년 3월 두 번째 주에 발간된 『씨네21』에 A극장이 B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 다음 주까지 7일 동안은 A극장에서 B영화가 상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물론 실제로는 영화가 일주일 단위로 상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분석에서 사용되는 관측치가 많고, 이 오차가 국산영화 또는 외국영화 한쪽에 일관되게(systematically) 나타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론적으로 특정 연도의 개별 극장에 대한 관측치는 그 극장이 보유한 스크린 수에 365를 곱한 것이 될 것이나 실제로는 극장에 대한 보수 공사나 행사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상영을 중지한 경우가 있어서 이보다 적었다.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연도	스크린 수	개봉영화 수		외국영화 상영 비율	HH 지수*	쿼터를 충족한 극장 비율	
		한국영화 수	외국영화 수			146일 기준	40% 기준
1993	183	78	361	82.8%	3,094	1.7%	4.9%
1994	170	68	373	81.5%	3,543	0.0%	3.8%
1995	162	58	316	75.7%	3,814	3.4%	7.4%
1996	152	55	315	74.0%	3,079	2.5%	5.3%
1997	160	62	274	70.8%	4,266	0.0%	3.4%
1998	164	44	244	73.4%	5,262	0.0%	2.5%
1999	279	71	207	68.8%	4,189	9.9%	16.7%
2000	205	57	225	68.3%	4,085	5.2%	12.1%
2001	394	53	227	58.2%	4,210	38.2%	49.7%
2002	507	74	208	55.5%	3,062	43.7%	63.1%
2003	520	61	196	54.6%	3,197	37.3%	59.0%
2004	570	76	195	46.3%	2,970	50.4%	76.0%

주: *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자료: 자료로부터 저자가 직접 계산했음.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에서 볼 수 있다. 스크린 수는 1993~1998년에 160~180여 개였으나 2001~2002년에 크게 증가해서 2004년에는 570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2000년대 들어서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봉된 한국영화의 수는 해마다 크게 변했지만 추세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외국영화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외국영화를 상영한 스크린의 비율도 1993년의 82.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04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개봉된 외국영화 수와 외국영화를 상영한 스크린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 기간에 한국영화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스크린쿼터제의 유효성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상영된 한국영화의 다양성, 즉 얼마나 많은 영화가 특정 시점에서 상영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특정일에 상영된 한국영화가 차지한 총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개별 한국영화가 차지한 스크린 수의 비율을 계산해서 제곱한 후 합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특정 시기에 상영되는 영화의 수가 증가하거나 개별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이 균등해질수록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작아진다. <표 1>에 따르면, 허핀달-허쉬만 지수가 1998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후로는 감소하였다. 즉 최근 들어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의 충족 여부는 한국영화를 연간 146일 이상 상영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극장의 상영일수는 종종 휴관 혹은 내부시설 수리로 인해 365일에 못 미친다. 따라서 146일 대신 전체 상영일수 중 한국영화를 상영한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쿼터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06년까지 영화진흥법상의 기준은 40% 이상이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 극장의 경우는 두 기준 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으로 스크린쿼터를 충족한 극장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까지는 쿼터를 채운 극장의 비율이 20% 미만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50%를 상회하였으며 2004년에는 76%에 이르렀다. 2001년은 관객 수 기준으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어선 첫해이다. 2001년 46.2%를 기록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54.2%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스크린쿼터를 채운 극장의 비율과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유사한 추세를 가지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의 상업적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역으로 한국영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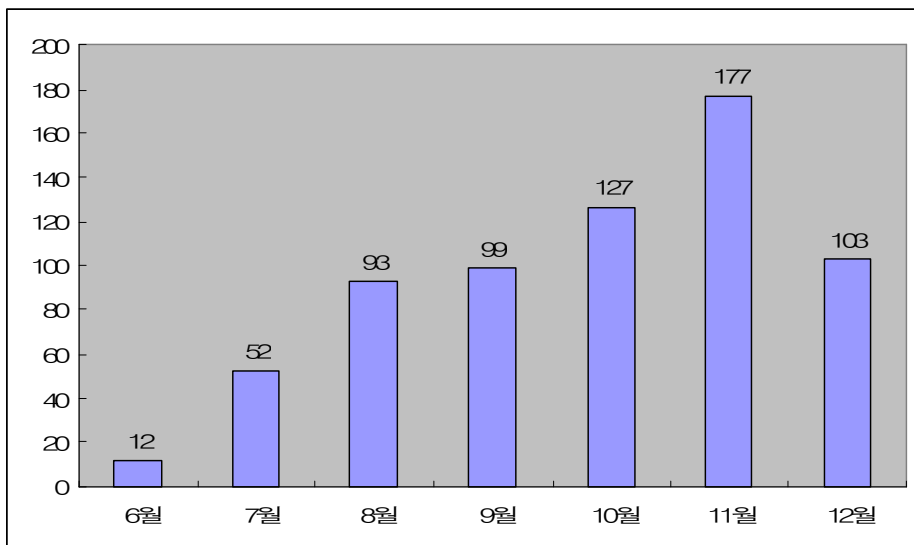
흥행성이 높아지면서 쿼터를 채우는 극장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두 변수 간 인과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2. 실증분석

(1) 양적인 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의 효과: <가설 1>의 검증

스크린쿼터제가 극장주로 하여금 한국영화의 상영일수를 늘리게 하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충족하기 전후의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는 <가설 1>을 검증하는 것인데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01~2004년이다. 쿼터 충족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쿼터를 충족시킨 극장 수가 충분해야 하는데 <표 1>에서 확인되듯이 쿼터를 채운 극장의 비율은 2001년부터 30%를 초과하였다. 또한,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117개의 극장이 11월에 쿼터를 채운 반면, 6월 이전에 쿼터를 채운 극장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외국영화 상영 비율의 비교는 7월 이후에 대해서 행하였다.

<그림 2> 스크린쿼터를 충족한 극장의 월별 분포: 2001~2004년



쿼터를 충족한 극장과 그렇지 못한 극장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에 대해 t 검정을 수행한 결과, <표 2-1>과 같이 쿼터를 충족시킨 후 오히려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쿼터를 채우기 전에는 전체 스크린 중 약 53%가 외국영화를 상영했으나 쿼터를 충족한 후에는 비율이 40%로 감소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극장주가 스크린쿼터의 제약하에 있을 때 제약이 없는 경우에 비해 외국영화를 더 많이 상영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설 1>은 기각된다.

<표 2-1> 스크린쿼터 충족 전후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 2001~2004년

구 분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쿼터 충족 전	159,717	0.533	0.499	0.531	0.536
쿼터 충족 후	38,549	0.402	0.490	0.397	0.407
전 체	198,266	0.508	0.500	0.506	0.510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스크린쿼터를 채울 의사가 없는 극장주가 소유한 극장들이 표본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스크린쿼터를 채울 의사가 없는 극장주는 쿼터를 채우기 전에도 한국영화보다 외국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극장들이 쿼터를 충족하지 않은 그룹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쿼터를 충족하지 않은 극장들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이 쿼터를 충족한 극장들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해서 쿼터를 채운 극장만을 대상으로 쿼터 충족 전후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을 비교한 것이 <표 2-2>이다.

<표 2-2> 스크린쿼터 충족 전후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 2001~2004년(쿼터를 채운 극장)

구 분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쿼터 충족 전	44,411	0.405	0.491	0.400	0.409
쿼터 충족 후	38,549	0.402	0.490	0.397	0.407
전 체	82,960	0.403	0.491	0.400	0.407

<표 2-2>에 의하면, 쿼터 충족 전과 후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외국영화 상영 비율에 있어서 약 0.3%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가 극장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은 여기에서도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표 2-1>과 <표 2-2>가 2001~2004년의 자료를 사용한 추정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의 흥행이 저조한 시기에 한국영화의 상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침체기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표 3> 스크린쿼터 충족 전후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 1993~1998년(쿼터를 채운 극장)

구 분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쿼터 충족 전	1,068	0.237	0.425	0.211	0.262
쿼터 충족 후	2,301	0.401	0.490	0.381	0.421
전 체	3,369	0.349	0.477	0.333	0.365

<표 3>은 1993~1998년에 쿼터를 충족시킨 극장들을 대상으로 쿼터 충족 전과 후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⁵⁾ <표 3>에 의하면, 앞서의 결과와 달리 쿼터를 충족하기 전의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이 충족한 후의 그것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요약하면, 1993~1998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설 1>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설 1>이 한국영화의 호황기에는 기각되었으나 불황기에는 기각되지 않았다.⁶⁾

- 5) 2001~2004년 기간에 대해서는 쿼터 충족기간을 일수나 비율 어느 것으로 삼더라도 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993~1998년 기간은 146일을 채운 극장 수가 적기 때문에 상영비율 40%를 쿼터 충족의 기준으로 삼아 분석한 결과만 제시하였다.
- 6) 1985년에 쿼터가 165일에서 146일로 줄어들면서 필요한 경우 20일까지 쿼터를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 1996년부터는 단축이 가능한 일수가 40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쿼터는 146일이 아닌 126일(1996년 이전) 또는, 106일(1996~2004년)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감안해서 쿼터를 126일과 106일로 각각 설정하고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즉 <가설 1>이 한국영화의 호황기에는 기각되었으나 불황기에는 기각되지 않았다.

(2) 질적인 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의 효과: <가설 2>의 검정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지 검증하기 위해 쿼터 충족 전과 후 한국영화를 상영한 극장의 집중도를 측정해서 비교하였다.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2001~2004년의 9~12월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⁷⁾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한 극장이 20개인데 이 중 A영화가 10개 극장에서(50%), B영화와 C영화가 각각, 5개 극장에서(각 25%) 상영되었다면 그 시점에서의 한국영화의 집중도는 $50^2+25^2+25^2=3,750$ 이 된다.

<표 4-1> 한국영화를 상영한 극장의 집중도: 2001~2004년(쿼터를 채운 극장)

구 분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쿼터 충족 전	406	3,367	1,719	3,199	3,534
쿼터 충족 후	417	3,451	1,495	3,307	3,595
전 체	823	3,409	1,609	3,299	3,519

<표 4-2> 한국영화를 상영한 극장의 집중도: 1993~1998년(쿼터를 채운 극장)

구 분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쿼터 충족 전	448	8,964	1,932	8,785	9,143
쿼터 충족 후	667	7,939	2,498	7,749	8,129
전 체	1,115	8,351	2,341	8,213	8,488

2001~2004년의 경우, 쿼터를 충족시키기 전에는 국산영화를 상영한 극장의 평균 집중도가 3,367인 데 반해, 쿼터를 충족한 후에는 3,451로 나타남으로써 집중도 지수가 더 높아졌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이 채운 극장에 비해 더 많은 수의 한국영화를 상영할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또한, 한국영화의 침체기인 1993~1998년 경우에는 쿼터를 채우기 전의 집

7) 허핀달-허쉬만 지수의 크기는 표본의 크기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표본의 크기가 1일 경우,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정의되지 않거나(외국영화를 상영했을 경우) 10,000(한국영화를 상영했을 경우)이 된다. 표본의 크기가 허핀달-허쉬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상 기간을 9~12월로 한정하였다.

중도가 채운 후의 그것보다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영화 침체기에는 스크린쿼터제가 영화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즉 흥행성이 있는 한국영화가 드문 시기에는 극장주가 소수의 한국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함으로써 쿼터를 채우기 때문에 다양성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⁸⁾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별 극장의 영화 상영 자료를 사용해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는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증가하는 양적인 측면과 상영된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커지는 질적인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는 스크린쿼터를 충족하기 전과 후 극장들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과 상영된 한국영화의 집중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스크린쿼터라는 제약하에 있는 극장과 쿼터를 채움으로써 제약에서 벗어난 극장의 상영 패턴을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분석의 대상을 상영된 영화로 삼았기 때문에 상이한 시점에서의 환경적 요인이 흥행에 미친 효과를 스크린쿼터제의 효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극장의 연간 상영 정보로서 일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영화시장에 존재하는 수요와 상영의 계절성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2001~2004년의 경우, 쿼터를 채운 극장과 채우지 못한 극장 간에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3~1998년에는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이 제도는 양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1993~1998년과 2001~2004년의 두 기간은 한국영화의 흥행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극장산업의 구조 측면에서도 상이하다. 2001~2004년의 기간은 앞선 기간과 달리 멀티플렉스가 나타나 크게 확산된 시기이고, 배급사 또는 제작사와 극장 간의 수직계열화가 자리 잡은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두 시기의 스크린쿼터 효과차이는 한국영화의 흥행 정도뿐만 아니라 극장산업의 구조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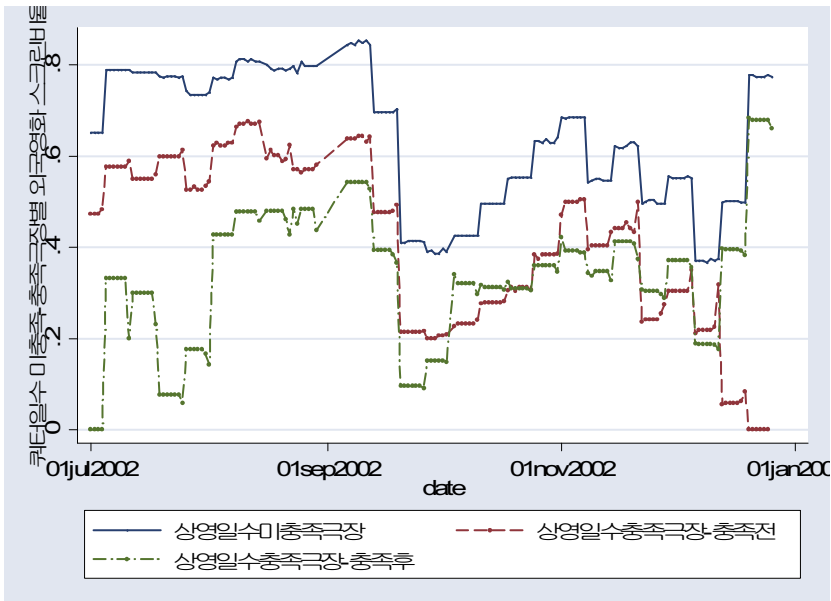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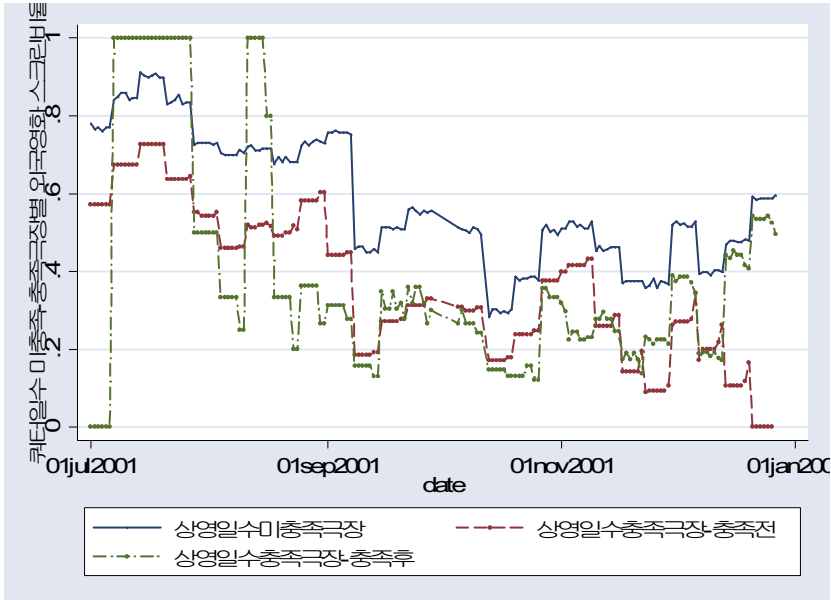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쿼터가 한국영화의 침체에 한국영화의 상영일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 제도를 유지 내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스크린쿼터제 폐지론자들은 이 제도가 경쟁력이 없는 한국영화를 강제로 상영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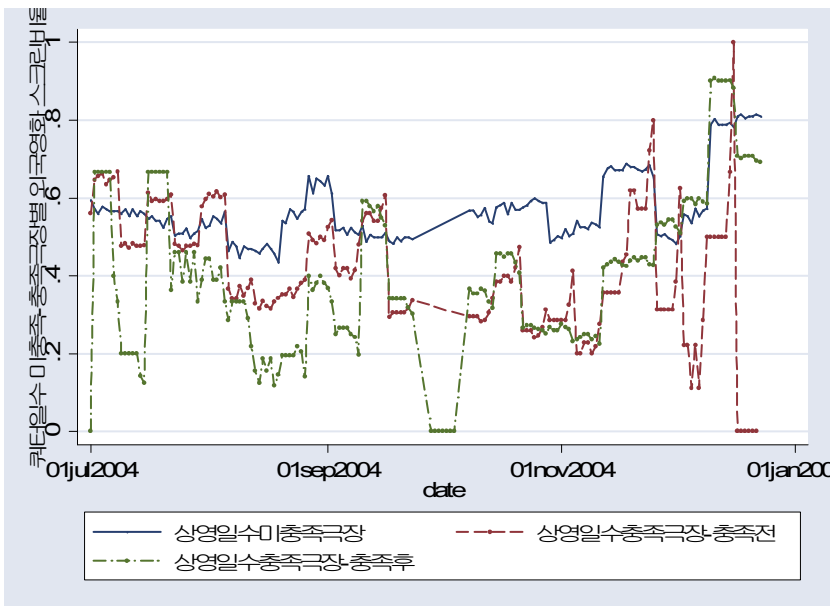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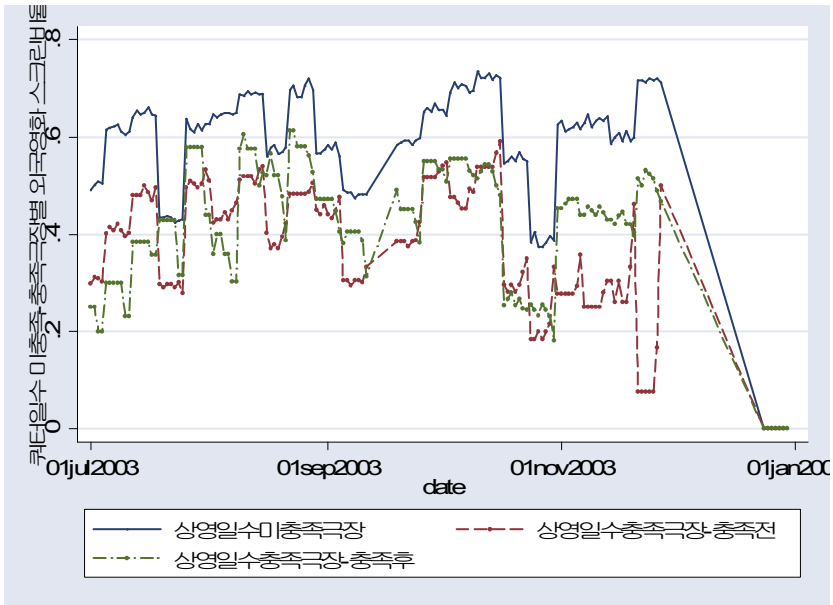
다음으로,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이 쿼터를 채운 극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는 상영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대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쿼터 제약하에 있는 극장과 그렇지 않은 극장을 구분해서 상영패턴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쿼터라는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더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극장주와 영화제작자의 이윤 극대화와 관람객의 효용 극대화가 동시에 고려된 모형의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적으로 극장주는 영화의 공급 상황과 관람 수요의 계절성을 감안해서 특정 영화의 상영 여부와 상영 시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모형을 세우고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극장 자체의 특성도 상영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배급사 또는 제작사와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극장은 그렇지 않은 극장과 상이한 상영패턴을 보일 수 있고, 멀티플렉스 극장은 상영되는 영화를 배합(포트폴리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관 극장과는 구별되는 상영 행태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⁹⁾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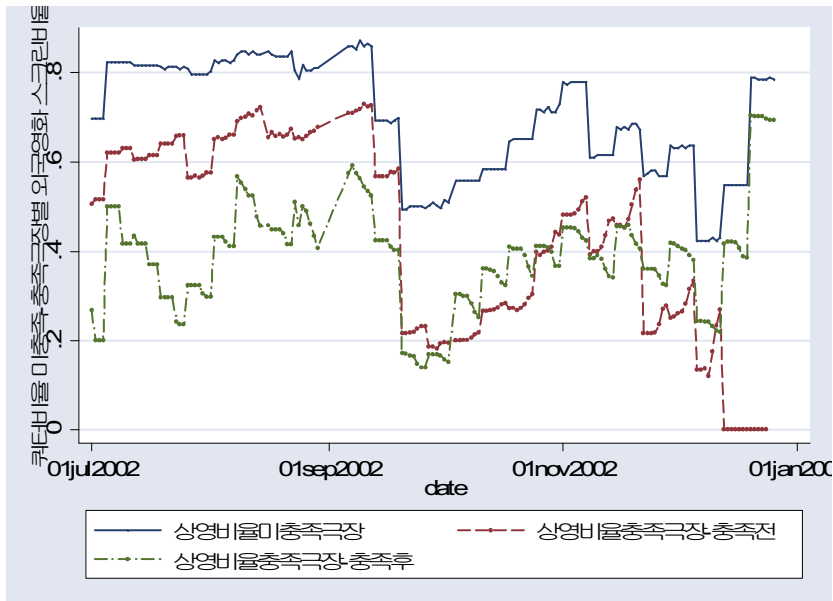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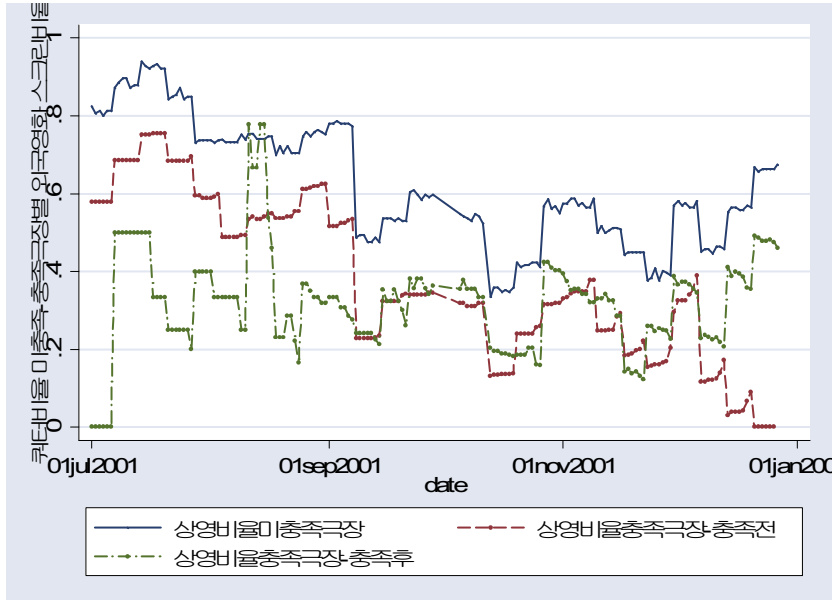
9) 이 밖에 한 가지 더 언급하면, 극장주는 국내의 배급사들의 영화 공급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상영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극장주는 영화 개봉 및 종영을 상당히 즉흥적으로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원희·라준영 (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제작과 상영 프로세스가 훨씬 짧아서 보통 개봉 1주일 전에 상영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극장주가 1년 단위의 상영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상영을 하더라도 쿼터가 규제로 작용한다면 계획 수립 시에 쿼터 반영되어 쿼터 충족 전후로 상영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쿼터 충족 전후를 비교한 것은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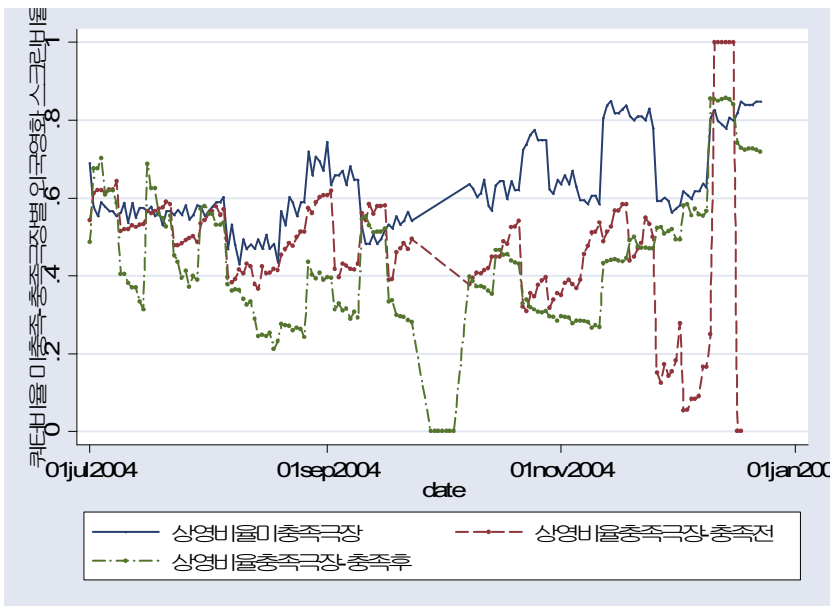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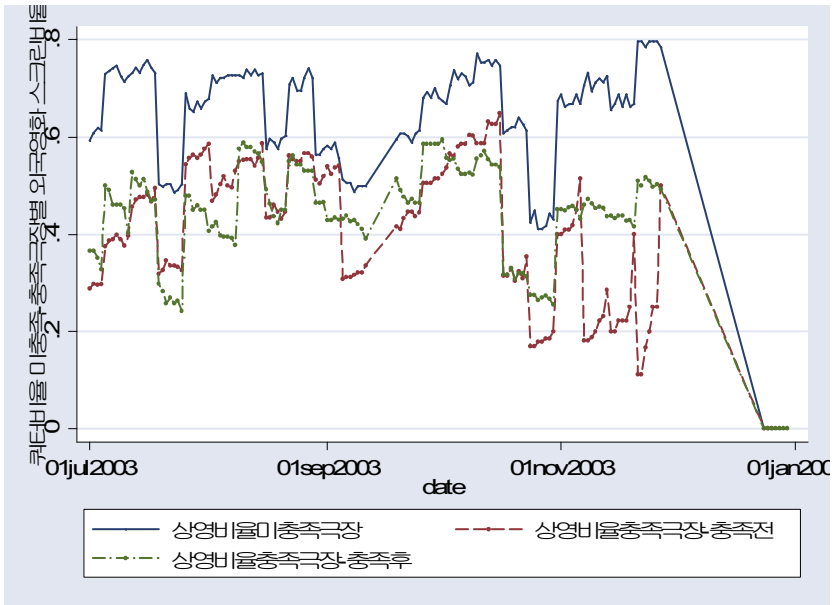
부록 1-1. 스크린쿼터 충족 전후 외국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146일 기준): 2001~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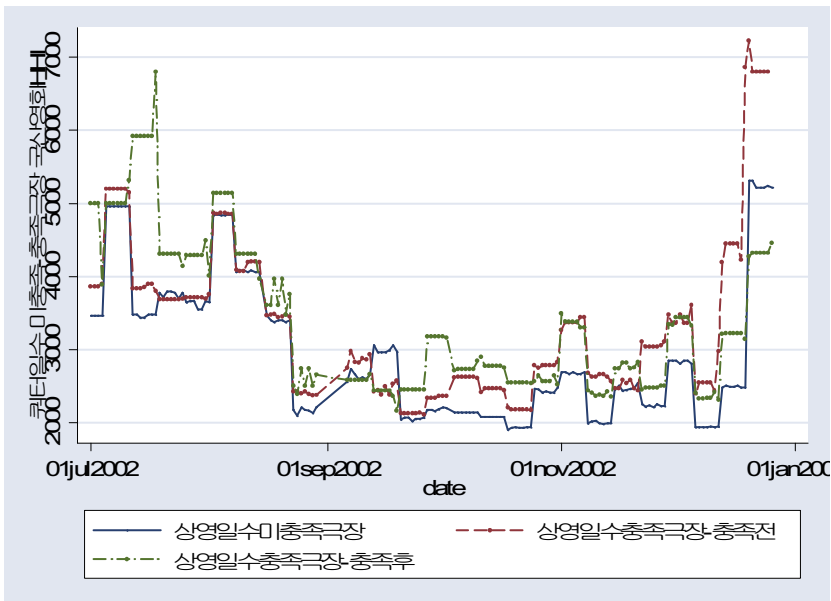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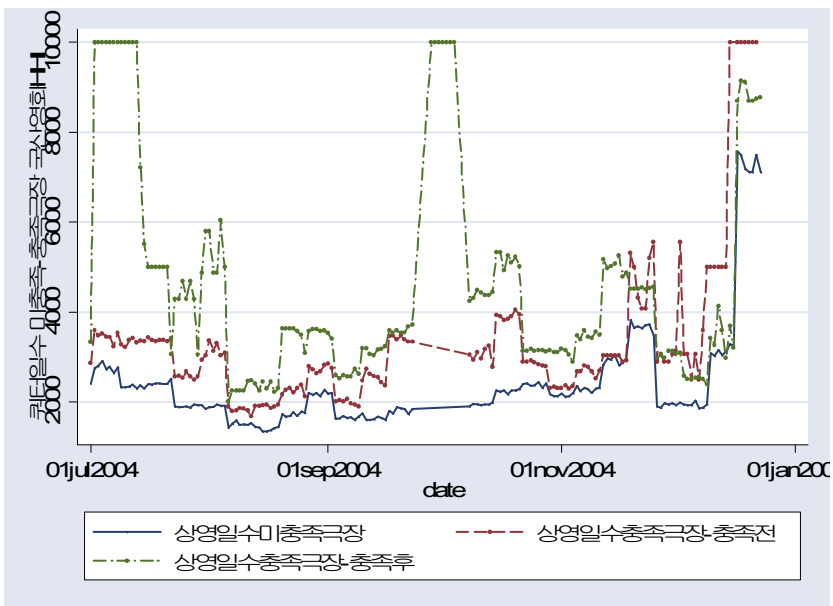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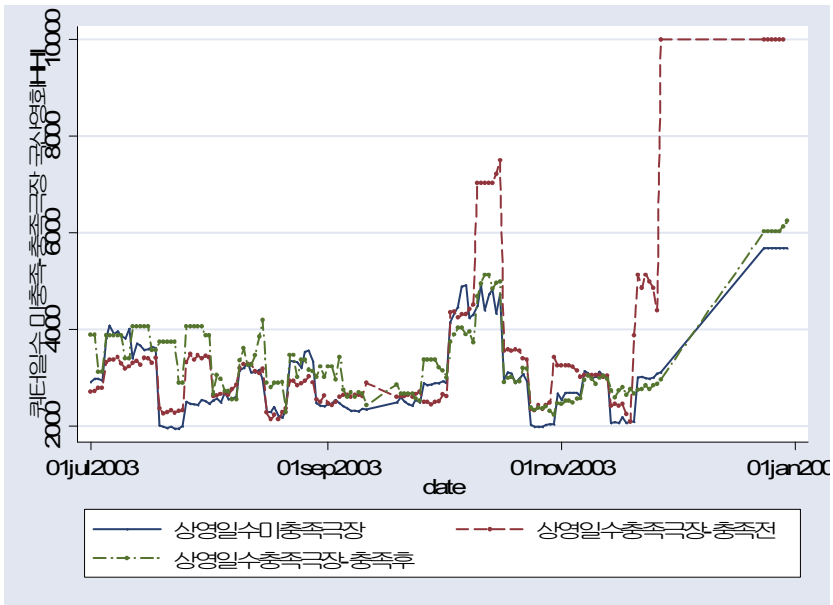
부록 1-2. 스크린쿼터 충족 전후 외국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40% 기준): 2001~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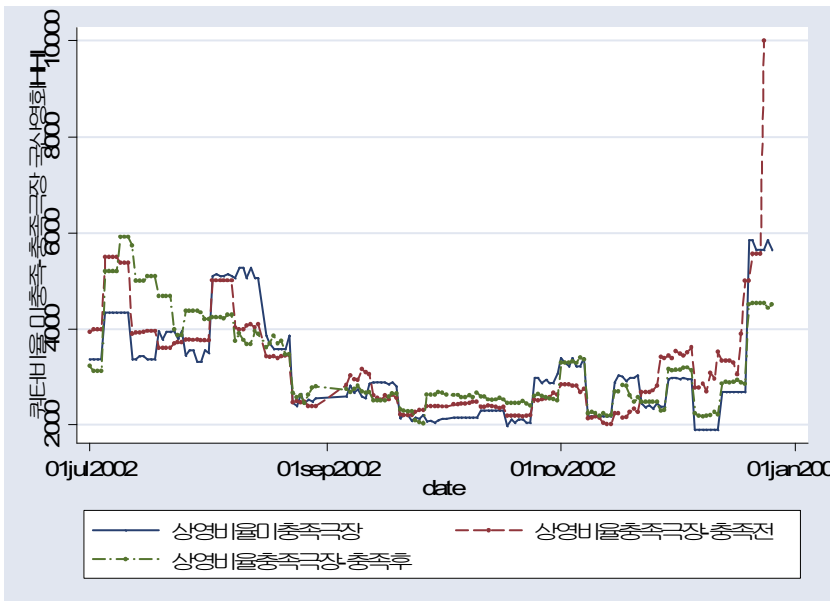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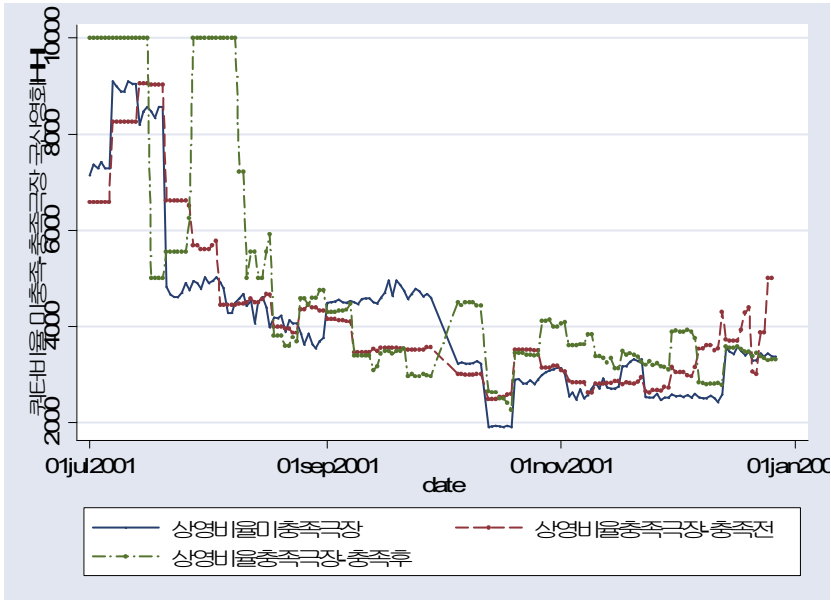


부록 2-1. 스크린쿼터 충족 전후 한국영화의 집중도(146일 기준)
: 2001~2004년





부록 2-2. 스크린쿼터 충족 전후 한국영화의 집중도(40% 기준)
: 2001~2004년



참고문헌

- 강신일,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1.
- 김은미, 「한국영화의 흥행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2), 2003, pp.190-220.
- 김정수, 「스크린쿼터와 판따라: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개입과 문화산업 경쟁력에 관한 시론」, 『한국행정학보』, 3(3), 1999, pp.1-27.
- 류형진, 『멀티플렉스 산업연구』, 한국영화진흥위원회, 2006.
- 양영철, 『영화산업』, 집문당, 2006.
- 오정일·현 승, 「스크린쿼터제의 문화정책적 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4(1), 2005, pp.55-68.
- 윤미경 외 2인,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이원희·라준영, 『극장의 영화선택과 상영관 배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영화진흥위원회, 2006.
- 이해영 외 4인,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투자협정』, 스크린쿼터문화연대, 2004.
- 정현일, 「후생과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본 영화상영 계약방식의 이해」, 『문화경제연구』, 9(1), 2006, pp.71-108.
- 좌승희·이태규,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6.
- 한국개발연구원, 「스크린쿼터 축소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나라경제』, 2004.
- Ainslie A, Drze X and Zufryden F., “Modeling Movie Life Cycles and Market Share,” *Marketing Science*, 24(3), 2005, pp.508-517.
- Einav, L., “Seasonality in the U.S. Motion Picture Industry,” *RAND Journal of Economics*, 38(1), 2007, pp.127-145
- Gil, R., “Demand Shifts and Changes in Competition: Evidence from the Movie Theatre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Economics of Business*, Vol.13(3), 2006, pp.407-428.

Moul, C. C., Measuring Word-of-Mouth's Impact on Theatrical Movie Admissions,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16(4), 2007, pp.859-892.

Orbach, B. Y. and Einav, L., "Uniform Prices for Differentiated Goods: The Case of the Movie-Theater Industry,"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7(2), 2007, pp.129-153.

Release Pattern of Foreign Movies and Regulatory Effects of Screen Quota: A Micro Study

Minsoo Park, Jeung-II Oh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how so called screen quota, a quantitative regulation of foreign movies affected movie release decision of movie theaters in Korea by using micro data of individual theater between 1993-2004. Unlike most of previous studies, we can isolate the effects from other factors by comparing the theaters which have sufficed domestic movie quota with the theaters which are not yet freed from the constraint at a same point of tim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of movie theaters in the period of 2001-2004, but the theaters which had not fulfilled the quota obligation were releasing less foreign movies in 1993-1998, a recession period of the Korean movie industry. Variety effects of the regulation are not proved to have existed independent of period. That is, screen share of released Korean movies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of theaters.

Key words: Screen quota, Regulation, Movie Industry, Cross Sectional Analysis, Seasonality of Demand